화장품·의류 영향 제한적…불닭볶음면 등은 인상 압박

한미 관세협상 타결…화장품·의류·식품·유통업계 영향은?

현지생산·수출 다변화로 '활로'…동남아 생산 OEM업체들 촉각

향후 품목별 세부 조정 방향 예의주시하며 다각적인 변화 모색

한미 상호관세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식품·화장품 등 각 분야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 기업들이 향후 양국의 세부 조정 등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이 8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지만, 기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 업계 조건이 일부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정부 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미 수출을 타겟으로 하는 화장품·의류 등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관세협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최근 미국 수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협상 이후 세부 조정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화장품 업계 수출액이 올 상반기 기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7% 오르는 등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거의 확정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관세 도입 이후 매출 감소 등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 비교적 저렴하고, 생산 원가가 낮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관세가 생산 원가에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 원가가 낮은 화장품의 시장 경쟁력이 관세 도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은 이미 미국에 생산 공장을 마련했으며,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은 향후 세부 품목 조율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관세 도입 후 원가 부담 확대 여부를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식품업계는 기업별로 관세 도입 여파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CJ제일제당과 농심 등은 이미 미국 공장에서 주력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관세 도입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양식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미주가 지난해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의 28%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미 관세 확대로 인해 가격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의류업계의 경우 한국 브랜드의 대미 수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에 물건을 납품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들은 향후 관세 세부 조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세실업은 "동남아 고관세 소식 등으로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펼쳐 지난해 법인을 설립한 엘살바도르 공장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9월 인수한 미국 텍솔리니 섬유 공장을 통한 현지 생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아상역 역시 베트남과 중남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만큼 관세 여파를 지켜보고, 추후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미국 상품을 직구할 수 있는 한도 등이 변화가 없어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31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업발전혁신인상' 시상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제공〉

농협, 농업발전 기여 도지사·의원 6명 '혁신인상' 수여

김영록 지사·서삼석 의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 공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31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업발전혁신인상(농업정책혁신부문)' 시상식을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김태흠 충남지사, 어기구(민주·충남 당진)·이만희·이양수(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수상자로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협은 지난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시상해왔다.

올해는 '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도지사·국회의원 6인을 선정했다. 김 전남지사와 서 의원은 전국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남지사는 전남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소득향상을 견인하는 한편,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재해 인정을 이끌어내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농협조합원 1200여명 대상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과 농업 3법 개정안 발의 등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구현하는 데 힘써왔다.

농협전남본부 이광일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전남도의 농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 APEC 성공 개최 전담인력 6000명 투입 안정적 전력공급 체제 구축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30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전력인프라 확충과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APEC 회의장과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9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2025 APEC 전력확보 추진 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전담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본사 6개 처와 경주 지역을 관할하는 한전 대구본부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에도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APEC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설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 수준이다. 설비 공사는 오는 8월 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또 한전은 행사 한 달 전부터는 경주와 본사에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한전과 협력사 인력 6000여 명을 투입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게 됐다"며 "회의 기간 중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상반기 국세 190조 걷혀…작년보다 21.5조↑

법인세·소득세 모두 호조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17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고, 고액 상속자가 발생하며 상속·증여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9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이 줄며 2000억원 감소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1.1% 수준이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51.6%)과 유사하다.

법인세가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월까지 45조원 걷혔다. 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尹 감세 환원'…법인세 전 구간 1%P↑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세수 8조 보강·'미래투자' 증세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며 사실상 증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그간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애초 취지에 맞도록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8조1672억원(전년비 기준·순액법)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계산(누적법)한 세수 효과는 5년간 35조6000억원이다.

증세 부담은 대부분 기업 몫이다.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상향 조정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다.

전체 세수효과의 절반이 넘는 4조1676억원은 대기업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 세부담도 1조5936억원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세제개편은 향후 본격적인 증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증세 카드로 꼽힌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강조했지만 비과세·감면과 면세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전남 생산·소비 경기지표 지속 개선

소비쿠폰 등 소비심리 회복 전망

광주·전남지역 생산과 소비 등 경기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지역민의 소비심리가 회복된 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급됨에 따라 향후 소비 지표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6월 중 광공업생산지수는 126.9로 전년 동월(115.4) 대비 10% 상승했다. 출하가 2.2% 늘었고, 재고는 0.1%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39.9%), 기계장비(-22.0%), 금속가공(-31.5%) 등이 하락했으나, 전기장비(53.6%), 담배(76.3%), 자동차(18.1%) 등이 전체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비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6월 기준 90.8로 전년 동월(96.1)보다 5.5% 감소했다. 백화점(-3.2%)과 대형마트(-8.5%) 판매가 모두 부진했던 영향이다.

다만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폭을 좁혀가며 지역 소비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광주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백화점 매출 개선을 중심으로 2월(-17.1%), 4월(-8.8%), 6월(-5.5%) 등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남은 생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소비 회복세가 빨랐다.

전남 6월 중 광공업생산지수는 103.4로 전년에 견줘 4.3% 하락했다. 출하는 0.5% 증가했지만, 재고가 3.5% 감소한 영향이다.

전남은 주요 산업인 기계장비(83.5%), 1차금속(1.0%), 석유정제(1.7%) 등은 증가했지만, 화학제품(-6.6%), 기타운송장비(-22.4%), 전기장비(-42.7%) 등이 감소했다.

전남 6월 중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7.5% 감소한 78.8을 기록했다. 전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2월(-22.1%), 4월(-9.7%)에 이어 감소폭이 대폭 좁혀지고 있다.

상품군별로 신발·가방(12.4%), 오락·취미·경기용품(12.0%) 등이 증가했으나, 음식료품(-2.8%), 의복(-26.8%), 가전(-18.5%) 등은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6분기만에 최저

2분기 영업이익 4조6761억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000억원에 그치면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7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2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74조566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67% 증가했다. 순이익은 5조1164억원으로 48.01% 줄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주요 거래선에 대한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비메모리 사업의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갤럭시 S25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4조원 줄었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45.44 (-9.03)
↑	코스닥	805.24 (+1.57)
↑	금리 (국고채 3년)	2.460 (+0.006)
↑	환율 (US D) 〈오후 4시 47분 기준〉	1391.90 (+8.90)